

07
2024

재외동포의

창

- 특집 1 _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232명, 고국서 역량 강화 연수
- 특집 2 _ '2024 제1~3차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성료
- 특집 3 _ 베트남 등 다문화 가족 첫 초청...4개국 19가구 72명
- 정책 돋보기 _ 해외서도 본인확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 이슈 & 화제 _ 한국 속담집 펴낸 고려인 2세 "정체성 지켜야"



차세대 정체성 교육, 지금이 미래다.

지구촌 재외동포 사회가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안으로 견지한 소망의 동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차세대의 교육과 발전에 대한 믿음과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세대의 헌신과 노고가 온전히 차세대 교육을 위한 디딤돌로 놓이기를 바라며, 이민 사회의 고초들을 이겨왔을 것이다. 한글학교는 이런 염원을 디디고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감당하였다.

막막한 광야였던, 그 글로벌이 구체적 삶의 지점임을 각성할수록 미래를 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짚어야 한다. '지구촌 중심에 있는 나'를 읽어야 하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에 가닿는 정체성을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고정태(固定態)가 아닌, 역동태(力動態)로서의 정체성이 다가오는 것이다. 오늘, 차세대 정체성 교육은 이렇듯 어려운 과업으로 와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포 차세대 교육은 일찍이 없었던 격변을 맞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교육이 격변의 회오리에 들어 있다. 교육을 둘러싼 인간, 기술, 문화, 소통 등 제반 생태가 놀랍도록 가변적인 데서 오는 현상이다. 전통적인 근대 학교는 해체 위기에 직면하는가 하면, 기술 생태와 호응하여 교육 시스템과 수업 혁신을 기하는 데서는 대전환의 징후도 있다.

대전환과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포 차세대 교육은 두 가지 면에서 강력하게 도전해야 한다. 하나는 차세대 교육의 커리큘럼을 차세대의 교육 생태 환경에 맞추어 부단히 혁신(Curriculum Innovation)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미래 글로벌 생태에 맞게 확충하는 일이다. 그들의 정체성이 놀라운 정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미래의 글로벌로 나아가는 데에 어떤 교육적 동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내적으로는 상당한 상관과 상호성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유네스코(UNESCO)가 모든 세계인에게 21세기 교육의 목표로 강조했던, 협동(Cooperation), 연대(Solidarity), 상호의존(Inter-dependent) 등의 역량들을 새롭게 주목해 본다. 이들 역량은 얼핏 보면 도덕적 덕목 같지만, 여기에 내재하는 교육 방법의 지혜는 깊다. 차세대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장

'세계 시민 정체성'을 빚어내는 요소들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이 사는 나라의 주류 사회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주국 정체성'의 실천적 함양을 촉진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정체성 교육은 현재의 가치와 미래 가치를 동시에 품으며 그들의 의식을 고양한다. 앞세대가 견지했던, 과거에 기반한 정체성의 프레임과는 다르다.

한민족 정체성은 차세대의 존재 근원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거주국 정체성은 차세대의 현실 존재를 추동하는 힘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세계 시민 정체성은 세계인으로서 한인의 위대함을 만들어 가는 정신 동력이다. 내 안에 있는 미래 가치와 글로벌 가치를 세계 시민 정체성이 끌어 올린다. 이는 앞 세대 한인 동포들에게는 미처 다가올 틈조차 없었다고나 할까. 민족 정체성은 세계 시민 정체성을 담지 못해도, 세계 시민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을 담아낸다.

차세대 정체성 교육은 새로운 도전임이 분명하다. 미루어 둘 수 없다. 차세대 정체성 교육의 적극적 도약을 향해 모든 주체가 지금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 곧 미래다. **장**



- 02 창을 열며 차세대 정체성 교육, 지금이 미래다.
박인기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장
- 04 특집 1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232명, 고국서 역량 강화 연수
기조강연 - “한국 발전상 알리기, 차세대 위한 소중한 선물”
인터뷰 - “한국 발전상, 프랑스 고교생에 알리게 돼 기뻐요”
- 10 특집 2 ‘2024 제1~3차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성료
인터뷰 - 주목받는 ‘희망의 상징’ 차세대 동포들
- 14 특집 3 베트남 등 다문화 가족 첫 초청... 4개국 19가구 72명
“좋은 기회와 추억을 안겨준 한국 정부와 국민에 감사해요”
- 17 뉴스 속으로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청년들, 모국 체험 나선다
- 18 정책 돋보기 해외서도 본인확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 20 이슈 & 화제 한국 속담집 펴낸 고려인 2세 “정체성 지켜야”
- 22 글로벌 코리아인 유리천장 또 깰다...뉴욕경찰 첫 ‘한인 총경’ 허정윤씨, 고위 간부 내정
미 버지니아주 첫 한인 연방 판사에 재스민 윤 변호사
고려인 3세 가수 아니타 초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 24 OKA 뉴스 해외에서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해진다 외
- 26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동포청,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1~4일 서울서 개최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232명, 고국서 역량 강화 연수

재외동포청, 22~27일 인천서 한국어 교수법 배우고 한국 발전상 체험

전 세계에서 한인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에 앞장서
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고국을 찾아 한국어 교수
법을 배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
을 가졌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2일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막식을 갖고 27일까지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6일 동안 열리는 연수에는 전 세계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2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앞서 7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 사전 연수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역사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배웠고, 연수에서는 실습 등 교수법 고도
화를 학습했다.

또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차세대 동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기철 청장은 개막식 환영사와 기조강연에서 "한글학교를 통한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정부의 최우선 재외동포정책 목표 중 하나로 동포

청은 한글학교 교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낀 후 이를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80여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인 모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런 발전상을 한글학교에서 차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주류사회에 알리는 일은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통령은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동포청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동포청이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글학교 간담회 건의사항 피드백’ 세션도 진행

개막식에서는 지난해 6월 동포청 개청 이후 한글학교 등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는 ‘한글학교 간담회 건의사항 피드백’ 세션도 진행됐다. 동포청은 많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모국 연수에 초청되기를 희망하며 조기항공예약으로 항공료 절감 및 학교 수업 일정 조정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모국 연수 개최 시기에 대한 공지 및 참가자 선발이 보다 빨리 안내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며 실행하겠다는 재외동포청의 소통 의지가 담긴 귀중한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동포청은 특히 한글학교 지원 예산 증액과 교사 초청연수 확대 정책 등을 소개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청장은 ‘한국은 왜 자랑스러운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기초 강연에서 한국발전상 알리기를 통한 정체성 함양과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연수 기간 참가자들은 독일 출신 한옥 건축 전문가인 텐들러 다니엘의 ‘재외동포로서의 삶과 발전된 한국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에 대한 특강을 듣고,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진행한 ‘한글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수업 전략’에 대한 토크콘서트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5개의 전체교육, 5개의 분과 교육, 지역·종합 토론, 한국의 발전상 체험, 초등학교 수업 참관 등으로 진행됐다. 각국 한글학교의 우수한 수업 사례와 학교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분과교육에서는 온라인 연수에서 학습했던 한국어 말하기와 글쓰기 교수법, 수업 활용도가 높은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 관련 실습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수업 운영법, 교장을 위한 학교 운영 컨설팅 등 참가자별 맞춤형 교육도 이뤄졌다.

또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찾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 발전상의 교육 방법 및 효과적인 현지 전파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도 벌였다.

지난해 연수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연수 5일차에는 한국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해당 교사와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교사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 발전상 알리기, 차세대 위한 소중한 선물”

이기철 청장 특강서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위한 소중한 수단” 강조



이기철 청장이 '왜 한국은 자랑스런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 청장은 '2024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청장은 1만 5천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을 현대판 '독립투사'라고 부르며 90도 폴더 인사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 교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차세대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직접 PPT 발표자료를 준비해 '왜 한국은 자랑스런 나라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 청장은 특강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를 통한 정체성 함양과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강에서 외국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 직후의 참혹한 서울 풍경을 사진으로 보여 주면서 세

계 최극빈국으로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67달러에 불과했으며 1970년 말까지 북한보다도 빈곤했다고 지적했다. 또 필리핀과 태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을 정도 였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각종 경제관련 지표를 제시하며 오늘날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소개했다.

2022년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5만 6709달러로 5만 6970 달러인 EU 국가 중위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한국의 연간 GDP는 1조 7220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무역 규모는 1조 2730억 달러로 세계 7위, 60년간 1인당 GDP는 400배, 수출은 3900배 늘어난 최고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 분야별 특기사항으로 IT와 조선업은 세계 1위, 자동차, 해외 건설은 세계 5위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TV 판매량에서 1,2위를 기록해 전 세계 TV 3대중 1대는 한국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철 청장이 한국의 발전상이 담긴 네덜란드 교과서를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30K-50M클럽’에 가입해 명실상부 선진국

특히, 과거 개발도상국으로서 4개의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10년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2018년엔 평창동계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 했으며, 2019년엔 인구 5천만 명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넘는 국가를 일컫는 소위 ‘30K-50M클럽’에 가입해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국제신용등급이 AA로 G20 국가 중 한국보다 국제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4개국뿐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더 높다고 자랑했다.

특히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 현주소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청장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2023년 한국에 대한 민주주의 지표는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을 의미하는 8.09를 기록해 EU국가의 중위 수준인 7.90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0년부터 23년간 약 20위에서 24위를 유지하는 아시아 최고수준이며, 이는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보다도 높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피식민지 80여개 국가 가운데 EU평균 수준의 정치 경제발전을 모두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며 세계 최초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착한 나라 중 가장 훌륭한 나라로 ‘자긍심’의 근원

이 같은 발전은 60년 만에 달성한 것으로 좁은 국토, 빈곤한 자원, 북한의 위협, 과거 일제의 수탈 등 가장 불리한 여건 하에서 이룩한 것이며, 착한 나라 중 가장 훌륭한 나라로 ‘자긍심’의 근원이라고 역설했다.

이 청장은 한국의 이같은 발전상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국제사회가 인정한 객관적 사실이며 2013년 네덜란드 교과서 5개에 6쪽에 걸쳐서 자세히 기술됐

다고 소개했다. 이 청장은 이 대목에서 네덜란드 대사로 본직하고 있을 당시 자신의 노력으로 네덜란드 교과서에 실린 5 권의 책을 직접 가지고 나와 책을 보여주면서 당시 상황을 교사들에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발전상은 재외동포 정책의 2개 핵심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고, 둘째는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지원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 이를 장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첫째는 동포사회가 가장 바라는 것이며 둘째는 가장 핵심적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목표라고 언급했다. 셋째는 재외동포기본법 3조인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이며, 넷째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필수적인 임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발전상 확산의 기대효과는 첫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며, 둘째는 재외동포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과 인류 공동 번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대목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서방 국가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 청장은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전달 수단으로 1단계는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해서는 주말 한글학교 수업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동영상을 전파, 재외동포차세대대회와 모국 연수, 동포 간담회 개최 등을 들었다.

또한 2단계는 재외동포 거주국에 대해서는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게 이 청장의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 알리기는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가 거주국가에서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소중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발전상 알리기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사회에 의한, 재외동포의 펀드멘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차세대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망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발전상, 프랑스 고교생에 알리게 돼 기뻐요”

노선주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장, 한인 첫 프랑스 교과서 집필

한국인이 처음으로 집필 책임자로 참여한 외국 교과서가 빛을 보게 됐다. 주인공은 27번째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노선주(55)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교장이다. 책 제목은 '가자, 한국!'. 오는 8월 말 서점에 배포될 예정으로 9월 새 학기부터 프랑스 내 제2, 제3 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70개가 넘는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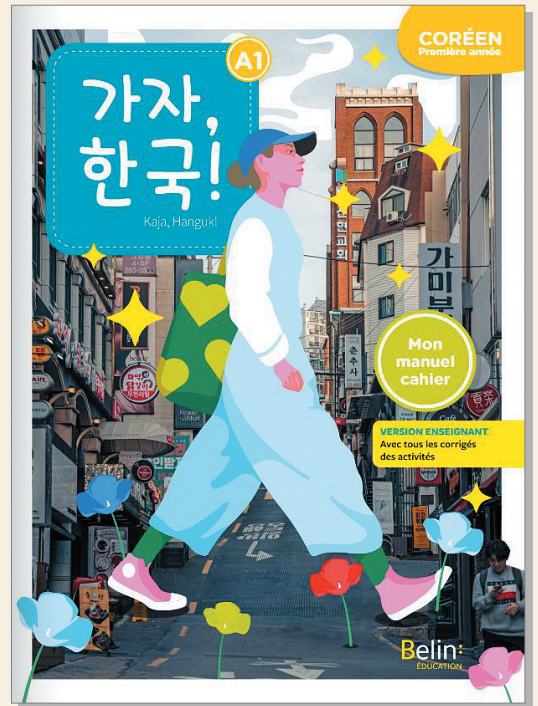
특히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 역점사업이 한국의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것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지닌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프랑스 한국어 교과서는 전 세계 1500개 한글학교에 모범사례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4 한글학교 교사 모국 초청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노 교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제가 집필한 새 교과서로 한국의 발전상과 전통문화를 프랑스 고교생들에게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어 보급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과서가 없어 성인용 교재로 수업해 왔다”면서 “지난 2022년부터 한국교육원과 함께 현지 고등학교 실정에 맞게 맞춤형 한국어 교과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의 맞춤형 교과서 집필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면서 세계 역사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거주국 교육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에 미리 입수한 새 교과서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함께 추석, 설날 등 한국의 명절과 김밥, 비빔밥 등 음식문화, 광화문, 북촌 등 서울의 모습, 한복과 태권도, BTS(방탄소년단)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프랑스 디종한글학교는 1998년 한인 입양인 학생 3명으로 시작해 2002년 주불한국대사관 한국교육원에 한글학교 인가 요청을 한 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06년 정식 인가를 받았다.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 학생 수는 150명이 넘을 정도로 크게 늘



9월 학기부터 교재로 사용될 프랑스 고교 한국어 교과서 표지

었다.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한 구글클래스룸에 최적화된 온라인 화상수업 때문입니다. 프랑스 내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싶다며 신청이 몰려오고, 심지어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어요.”

노 교장은 고등학교 불어 교사로 재직하다 1998년 프랑스로 유학해 부르고뉴대학에서 중세 불문학을 공부하고 현재 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 이후 현지인 남편을 만나 정착했고 통역사로 활동하며 2002년 디종 지역 한인회를 설립해 한인 회장도 지냈으며 2010년 디종 케트니-플롱비에 농업고 한국어 교사로 채용됐다.

2016년 디종시의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에 한국어와



프랑스 고교 한국어 교과서 집필 책임자로 참여한 노선주 교장

한국문화가 채택되도록 주도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직업고 학생 교류와 한국 학생의 프랑스 취업을 돕는 ‘글로벌 워크플레이스’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노 교장의 궁극적 교육 목표는 세계시민 양성이다. 그는 “프랑스의 국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는 전 인류적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을 넘어서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고 질문하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바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 ‘세계 속의 한국’이란 말이 있지요, 세계를 무대로 한국이 뛰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러 뛰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속의 세계’란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전 지구가 한국의 품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날아오고 있죠. 재외동포는 ‘한국 속의 세계’를 잇는 교량입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연수, 한국문화 연수, 차세대 국가 간 교류 사업 등 정책수립과 더불어 손님을 맞는 따뜻한 한국, 행복한 한국, 열정의 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고 했다.

“프랑스 다종에서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을 때 다종시 케라지안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학교는 이주민 정책의 살아있는 표본 모델’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덕분입니다.” **창**



9월 학기부터 교재로 사용될 프랑스 고교 한국어 교과서에 소개된 한국 관련 내용들.

‘2024 제1~3차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성료

이기철 청장 “차세대 2천명에 정체성 함양과 한국의 발전상 이해 기회 제공”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 이해를 통해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주최한 ‘2024 제1~3차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15~29일 인천 등지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2024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6차례의 하계(7월~8월) 연수에는 75개국 1,800여명의 청소년, 대학생이 참여한다.

동포청은 제1차 재외동포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 원년으로 삼아, 올해 2,000명 초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총 8회 모국 연수... 차세대 동포 2천명 모국 방문

15일 제1차 연수에서 인천시립무용단은 개막식에 앞서 무용과 전통 악기를 통해서 우리 가락을 선보인 오프닝 축하 공연을 펼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기철 청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역경과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유럽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미 있는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을 재외 한글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통해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며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한국 발전에 밑거름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면서 “이번 모국연수



16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제1차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개막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를 통해 차세대 동포들도 세계시민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민주주의 연대 의식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모국 방문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차세대 동포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립무용단 오프닝 공연, 태권도 시범단 피날레 눈길

이상돈 인천시 부교육감도 환영사에서 “차세대 동포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별순서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한국은 왜 자랑스런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이 있었다. 이 청장은 “과거 70년간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교육하고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 네덜란드 대사 시절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직접 네덜란



15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드 교과서를 가지고 나와 연수 참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며 직접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개막식의 피날레는 인천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이 장식했다. '태권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 태권도와 아리랑을 통해서 한국의 매력을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028년까지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

동포청은 이번 모국 연수에 참여할 차세대 동포들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포 청소년들은 16일 오전 개막식 참석후 오후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인천아라고교에서 체험학습을 가졌다. 손경희 아라고교장의 환영사에 이어 아라고 재학생들이 준비한 5인조 밴드연주, 한복패션쇼, K팝 댄스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 한국문화 체험에서 50명으로 구성된 한 그룹에서는 북과 장구 팽가리 등 사물놀이를 배워 장단에 맞춰 신명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영화 '오징어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한 한국전통 게임도 즐겼다. 한복입기 체험에서 동포청소년들은 한복을 입은 채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어 17일부터 용인 한국민속촌과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불국사, 첨성대, 월정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봤다.

서울 찾은 차세대 동포들, 광화문·인사동서 문화체험

19일에는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10명씩 조별로 나누어 서울 광화문 일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별 리더의 안내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지난 역사를 돌아봤고, 종로 일대를 지나 인사동으로 향했다. 화장품점이나 기념품 가게에 들러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기도 하고, 오락실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불가리아에서 온 박 에스더(16) 양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박양은 "참가자 모두 사는 곳은 다르지만,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금방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한국과 불가리아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여름 이 연수에 참가했던 우즈베키스탄 고령인 동포 진다인(20) 씨는 7조 리더를 맡아 후배들에게 종로 일대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진씨는 "후배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주목받는 ‘희망의 상징’ 차세대 동포들

“모국 방문 통해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찾게 돼 감사해요”

“대한민국이 모국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큰 자긍심 느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었으면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모국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남혜린(15·멕시코시티 거주) 양은 18일 경주에서 기자와 만나 “멕시코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던 한국에 초청해줘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

렇게 말했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멕시코로 이민을 가면서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그동안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이 컸다”면서 “살아온 환경과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생김새와 감정을 가진 여러 나라에서 온 동포 친구들을 만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찾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자봉천사’다. 이주민·난민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단체에서 그들을 돕기도 했다. 또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남 양은 외국에서 나고 자란 다른 참가자와 달리 한국말을 눈에 띄게 잘했다. 한글학교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한글학교에서 주최한 한글 백일장과 시화전 등에 참가해 여러 차례 상도 받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인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한인 정체성을 찾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아요. 멕시코로 돌아가면 재외동포 친구들이 모국 초청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소개하고, 멕시코 친구들에게 한국의 발전상과 전통문화를 적극 알릴 거예요.”

“불가리아로 돌아가면 한국의 발전상과 전통문화 적극 알릴 것”



불가리아에서 나고 자란 박에스더(16·불가리아) 양은 불가리아 렘스키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 한인이 없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소도시다. “그래서 한글학교를 다니지 못해 부모와 두 명의 오빠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남 양은 어린 시절부터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불가리아어, 영어, 독일어를 배우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탐구해왔다.

“미디어를 통해 케이팝의 멋진 음악과 춤, 케이 뷰티의 독특한 메이크업 스타일, 한국의 혁신적인 산업과 아름다운 건축물은 항상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또한 예술에 대한 열정은 어린 시절부터 제 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그림을 그리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제 삶의 큰 즐거움 이에요.”

박 양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할아버지다. 그는 북한 출신으로 남한으로 내려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했다. 그 후 파주시 문산에서 남북통일을 꿈꾸며 60년 넘게 살았다.

“2017년 그렇게 바라시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서 서울 현충원에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강한 모국애와 희생정신을 심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국가와 가족, 희생과 희망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박 양은 이번 연수를 통해 “불가리아와 한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을 찾고 싶습니다.”

“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75개국에서 2000여명의 청소년과 대학생이 참여한다. 1차는 298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서 주목 받은 4명의 참가자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2023년 민주평통 주최 평화통일골든벨대회서 대상 수상



조윤아(16·브라질) 양은 4살 때 아버지의 사업으로 브라질로 이민 갔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K-드라마, 음악, 음식과 같은 한류문화가 붐을 일으키면서 브라질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202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골든벨 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사에 대해 공부하고 더 지식을 얻고자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습득해 준비한 결과 대상을 받았다. 또 지난해, '브라질 꿈 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리더십 교육을 통해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양은 “대회 준비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통일의를 배울 수 있었고, 제 정체성에 대한 갈피를 찾으려 한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조 양은 특히 “이번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책으로 공부한 것을 넘어서 경주 유적지와 용인 한국민속촌 등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자긍심을 갖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측면을 브라질에 알리는 문화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2021년 제4회 한국전통예술마스터클래스서 최고상 수상




김로아(15·러시아 모스크바 거주)양은 2008년 한국에서 태어나 100일이 채 되지 않은 것 난아가기 때 부모를 따라 러시아에서 살게 됐다. 여동생 1명, 남동생 2명을 둔 4남매 맏이다.

“부모님이 한국 사람은 절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셔서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 유치원과 초등

학교를 졸업했어요.”

현재 김 양이 다니고 있는 러시아 고등학교는 재러 교포 교장 선생이 세운 특별한 학교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한국 학교로 알려져 있다. 김 양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을 도와 반 친구들의 한국어 글쓰기, 말하기 등을 돕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관한 각종 대회에 참가해 상들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 평화통일 말하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1년 제4회 한국전통예술마스터클래스에서 최고상인 세르피츠키(серфитика)상과 같은 해 ‘모이 돔 모스크바(Мой дом Москва) 대회에서 우수상인 지플롬(диплом)상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민주평통 주최 골든벨 모스크바협의회 예산 대회에서 장려상을, 제9회 통일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

김 양은 “이번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를 계기로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 제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등 다문화 가족 첫 초청...4개국 19가구 72명

재외동포청, '동포 보듬기' 사업 일환...한인 정체성 및 자긍심 함양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인이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족이 한국 정부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4개국 19가구 72명을 초청했다.

이번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차세대 재외동포를 향해 약속한 '우수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이행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청의 '동포 보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문화 가족 차세대 동포 초청 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체감하면서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와 함께 한국과의 유대감도 증진한다는 목표가 있다.

재외동포청은 다문화 가족 차세대 동포가 '미래 한-아세안 민간 외교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서울의 발

진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문화탐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대중문화(K-pop) 체험, 첨단제조 기업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계승해 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바로 알 수 있는 역사·문화 강연, 유적지 탐방, 전통무용·무예 공연, 전통의복 체험 등도 준비했다.

이기철 청장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강연했다.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발전을 이뤄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려 다문화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청장은 "대한민국은 EU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면서 "이 말이 길다 싶으면 한국은 착한 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는 사실을 외국에서 누가 물으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 당부했다.

기초 강연서 주인의식과 호기심 강조

이 청장은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은 점을 들어 자신의 어릴 시절 꿈을 포함해 차세대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조언을 들려줘 주목을



개막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기철 청장이 23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차세대 동포 초청사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받았다. 이 청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부모님들이 제 말에 동의한다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연 뒤 말을 이어갔다.

이 청장은 어린이들이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의 꿈은 어부였어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기행문을 읽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석양이 너무 멋있어서 어부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서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이후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행동지침이 됐지요. 내가 외교관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중학교 때 가졌던 꿈이 실현된 것이지요.”

이 청장은 이어 두 번째는 주인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네덜란드 대사 당시 네덜란드 고위급 CEO로부터 들은 얘기를 들려줬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 버려두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어린이들은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인데요,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 주인이 될수 없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는 사람만이 나중에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장은 세 번째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호기심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개인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대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관저에 초청 받아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덕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 수는 0.25% 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25%나 된다. 평균적으로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탈무드 교육’ 이라고 했어요. 핵심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항상 질문을 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적극 알리면 차세대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이 수출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 오늘날의 한류가 지속하고 확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과거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열심히 하면 선진국이 될수 있다는 것을 현재 개도국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나라도 발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나라가 많아지면 결국 인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 2~3세들에게 우수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

“좋은 기회와 추억을 안겨준 한국 정부와 국민에 감사해요”

재외동포청 초청, 캄보디아 출신 시엠 레아카나 “다른 다문화 가족들도 행복하길”

“아들하나 딸 하나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른 다문화 가족들도 행복하길 바래요.”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린 ‘다문화 가족 차세대 동포 초청사업’에 참가한 캄보디아 출신 시엠 레아카나(34)씨는 23일 기자와 만나 한국 방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우선 재외동포청 초청으로 한국 방문 소감을 물었다.

“엄청 좋고 감사해요. 딸에게 좋은 기회이고, 좋은 추억을 안겨줘서 감사합니다. 특히 다른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게 돼서 좋아요.”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에서 호텔 관광경영학과를 전공했어요. 이 분야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캄보디아협력센터(CKCC)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요. 그러던 중 2014년 대구가톨릭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됐죠.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2015년 한솔의류 회사에 취업해 통역사로 일했어요. 그러다 사업차 캄보디아에 온 남편 이연호(41)씨를 소개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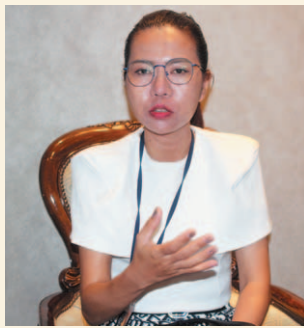
남편을 만나 지 얼마 만에 결혼했나.

“3~4개월 교제 후 2017년 결혼했어요. 딸 이아린(6)과 아들 이다건(4)을 낳았어요.”

시엠 씨는 지금도 통역사 일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 이연호 대표의 회사 캄보디아 지사장을 맡아 일을 맡아 하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이날 다문화 가족 초청 행사장에서 만찬을 하던 중 테이블을 돌아가며 차세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 눈길을 끌었다.



시엠 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자신을 초청해 준 재외동포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기철 청장과 시엠 레아카나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캄보디아에 기술 등 많은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와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국민들께 감사드려요.”

현재 시엠 씨 가족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살고 있다. 남편 이 씨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고 있으며 시엠씨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딸 이아린 양은 프놈펜한국국제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다.

시엠은 경남 양산이다. “시부모님이 친절하시고 많이 잘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장**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청년들, 모국 체험 나선다

재외동포청, 22일부터 한 달간 8개국 32명 대상 '한국이해과정' 시작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2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모국 체험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 32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한국이해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운영하는 경인교육대학교는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악과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K-팝 등 대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 발전상에 대한 특강을 듣고, 우리나라 산업 현장을 시찰하며, 방송국도 견학할 예정이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한국이해과정이 차세대 고려인들이 한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모국과 거주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장품협회 증명서 6종에 공증 절차 면제

재외동포청-식약처, 업계 애로사항 해소, 화장품 수출 지원

화장품 수출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6종의 추가 공증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제조판매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6종 원본에 추가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 본부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증명서 6종은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증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이다.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 확인서는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24일 열린 K-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업계 간담회 모습.

갖도록 인증하는 문서로, 공문서에 한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추가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 영사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화장품 업계가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서도 본인확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LA 총영사관 · 주중국 대사관 등 7곳서 시범 발급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 외에 사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모바일 보호증 도입에 이어 올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와 달리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로 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

사관·오kland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내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은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진 디플정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철 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내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생활 실태조사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지원 절차 체계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영주 귀국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동해항을 통해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환영 행사.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모국 정착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거·경제 상황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 사할린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우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생존 시 받던 주거 지원을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영주귀국

신청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서 접수는 매년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두 달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결과 통지, 임대주택 수요 조사 및 배정, 입국 등 후속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영주귀국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주귀국 대상자와 예비대상자를 결정하고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신청철회가 가능하다.

이기철 청장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뒤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며 "고국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속담집 펴낸 고려인 2세 “정체성 지켜야”

김 블라디미르 작가, ‘한국 금언’ 및 장편 ‘김가네’ 시리즈 1권 출간
2027년 타슈켄트 건립 ‘고려인 역사박물관’ 자료수집위원장 맡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세 김 블라디미르(한국명 김용택·78) 작가는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한국 속담과 격언 등을 모은 책 ‘한국 금언’ (베스트디자인 출판사)을 펴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작가는 10여년 동안 고려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틈틈이 쓴 내용을 다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등을 한국어로 소개하면서 러시아어로 해설을 곁들였다.

그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및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지혜가 담긴 속담과 격언 등을 먼저 아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의 관점에서 한국을 설명한 책을 통해 러시아어를 공부하려는 사람과 한인의 러시아 이주사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의 ‘2023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외 거주 고려인은 44만7천명이며 우즈베키스탄(17만2천명), 러시아(12만1천명), 카자흐스탄(11만9천명) 등 순이다. 올해 초 기준 한국 거주 고려인은 11만2천명이다.

타슈켄트 근교에서 태어난 김 작가는 유년기를 북한과 중국 등에서 보냈다. 타슈켄트국립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뒤 기자로 일했고, 카자흐스탄 한인 신문 고려일보의 우즈베키스탄 특파원과 타슈켄트 지국장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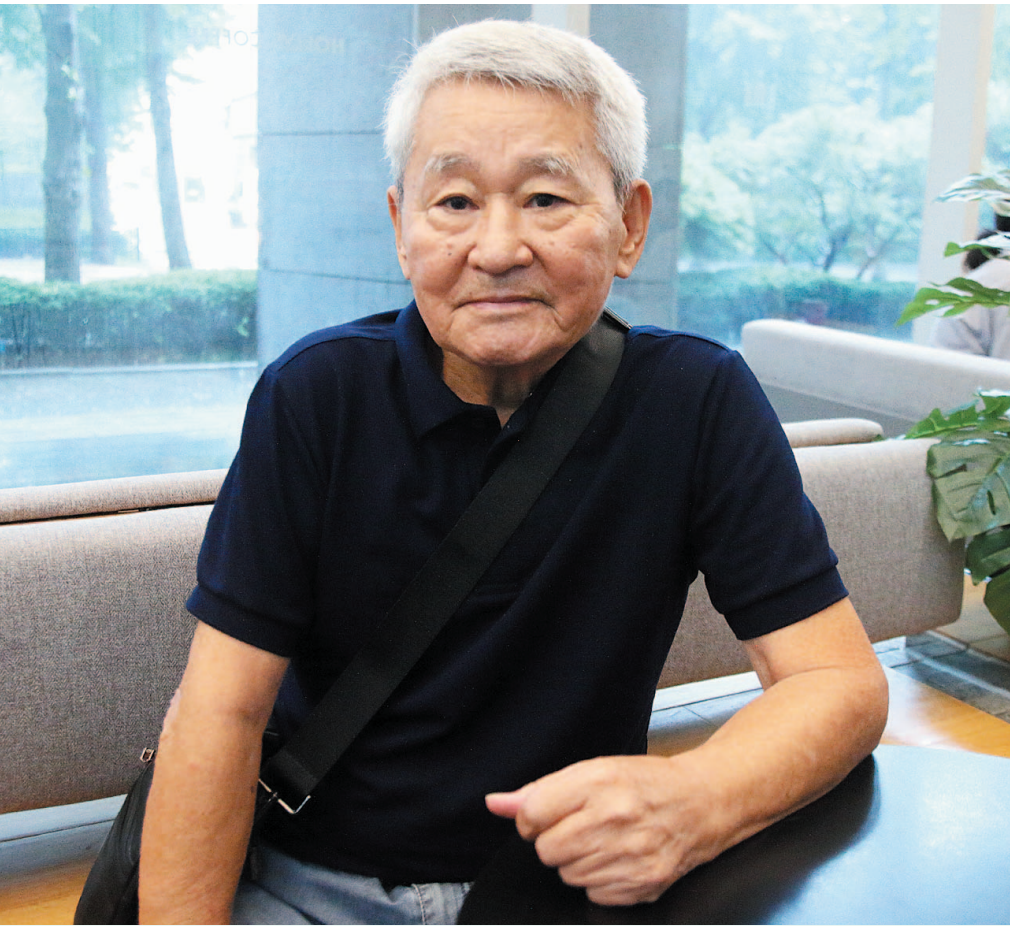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순방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개최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 블라디미르 작가(앞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와 고려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김 블라디미르 제공)

1988년 고려인 가운데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 명예 기자 칭호를 받았고, 2018년 ‘KBS 해외동포상’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한국문학센터 설립 운동을 진행했다.

김 작가는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다”며 “내 부모 세대의 아픈 역사를 고려인 4~5세대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고려인 동포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김가네’ 시리즈 1권 ‘김가네’를, 2020년 2권 ‘강제이주’를 현지에서 출간했다. 고려인의 우즈베키스탄 정착 90주년 및 양국 수교 35주년인 2027년에 마지막 3권 ‘한국전쟁’을 출간할 계획이다.

시리즈 1권 ‘김가네’는 지난달 10일 국내에서 1·2부로 나눠서 번역 출간



우즈베크 고려인 2세 김 블라디미르 작가가 출간한 '한국 금언' (김 블라디미르 제공)

한국 속담과 격언 등을 모은 책 '한국 금언' 출간을 맞아 최근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세 김 블라디미르 작가가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됐다.

그는 “방한 기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만나 신간 '김가네'를 선물했다”며 “독립유공자 김한(1887~1938)의 외손자인 우 의장은 올해 가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중앙아시아 순방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027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역사박물관 운영·관리를 맡게 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대표 단체인 고려문화협회 이사이자 고려인 역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자료수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작가는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은 동포사회의 숙원 사업”이라며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고려인 이주사 관련 서류와 각종 자료를 모으기 위해 여러 현지 기관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려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랑할 부분도 있고, 어렵고 힘들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다양한 모습을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게 목표이며, 후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창**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2세 김 블라디미르 작가(왼쪽)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고려인 동포의 삶을 다룬 자신의 장편소설 '김가네' 시리즈 1권을 선물하고 있다.(김 블라디미르 제공)



유리천장 또 깬다...뉴욕경찰 첫 '한인 총경' 허정윤씨, 고위 간부 내정 1998년 첫 한인 여성 경관으로 임용...“한인 존재감 알려 기뻐”

미국 뉴욕경찰(NYPD)에서 경무관급 한인 고위 간부가 처음으로 나왔다.

NYPD와 뉴욕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NYPD의 허정윤 총경(Inspector)이 데퓨티 치프(Deputy Chief)로의 승진이 최근 내정됐다.

데퓨티 치프는 일선 경찰서를 책임지는 총경보다 한 등급 높은 직급으로, 직급 체계가 다른 한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무관과 유사한 고위 간부직이다. 계급장도 총경을 상징하는 '독수리'에서 군의 장성급과 같은 별 1개로 바뀐다.

NYPD는 3만6천 명의 경찰관과 1만9천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이다. 허 내정자는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그는 지난 2022년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23년 연말 한인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하는 등 NYPD에서 '한인 최초' 기록을 양산한 바 있다. 이번 승진은 총경 승진 결정 후 약 6개월 만이다.

허 내정자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승진 소감에 대해 “한인 최초로 별 계급장을 달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고 한인으로서 '뭔가 해냈구나'라는 실감이 든다”며 “NYPD 내에 한인들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미 버지니아주 첫 한인 연방 판사에 재스민 윤 변호사 바이든 대통령 지명 발표 후 두 달 만에 상원서 인준

미국 버지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이 연방 법원 판사에 올랐다.

동포사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최근 본회의를 열고 버지니아 동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한인 1.5세 재스민 윤(한국명 윤혜정·44) 변호사를 인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워너 및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윤 변호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고, 상원이 2개월 만에 인준한 것이다.

워너 의원과 케인 의원은 인준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주 첫 아시아계 미국인 연방 판사인 그는 놀라운 실력을 갖췄고, 공직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다”며 “연방 사법부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마이클 어밴스키 수석 판사가 퇴임하면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



한다. 울산 출신의 윤 판사는 14살에 가족과 함께 메릴랜드주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버지니아대 법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민자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론과 통역 봉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해 로펌에서 '올해의 무료 변론 변호사상'도 받았다.

이후 버지니아 연방 동부지방검찰청에서 6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80여건의 금융 범죄 및 공직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했다.

2019년부터는 3년간 버지니아대에서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고,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금융 서비스 기업 '캐피털 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에서 기업 윤리 및 조사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그의 남편 크리스토퍼 캐버노 씨는 버지니아 연방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윤 판사는 앞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연방 판사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첫 한인 연방 판사로 임명된 한인 1.5세 재스민 윤 변호사.


고려인 3세 가수 아니타 초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장애 어린이 돕기 위한 재단 설립 등 사회 활동 공헌 인정받아

러시아 거주 고려인 3세 가수 아니타 초이(53)가 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1급 조국 공로훈장을 받았다.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니타 초이가 다년간 사회 공헌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니타 초이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위한 전시 플랫폼 회사인 갤러리 마스터 창립, 관장으로 활약 중이다.

아니타 초이는 옛 소련 시절 전설적 고려인 록 가수이자 밴드 '키노'의 리더 빅토르 초이의 명성을 잇는 고려인 3세로 러시아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갈라 콘서트를 총기획하기도 했으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아니타 초이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한 뒤 2003년 공훈예술가, 2021년 러시아 정부가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민 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니타 초이의 남편이자 전 모스크바 시장 유리 루쉬코프의 언론비서 출신인 세르게이 초이 로스네프티 부사장에게도 노동훈장을 수여했다. 



해외에서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 민관협력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가능해졌다.

동포청은 18일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체결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MOU에서 ▲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진흥원은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이 서로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한국정책학회, 동포정책 수립 위해 협력한다

연구·개발, 학술 교류 활성화 등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기철 청장, 윤지웅 학회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OU는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자료 등을 상호 교류해 재외동포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기철(오른쪽) 재외동포청청장과 윤지웅(왼쪽) 한국정책학회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자문 ▲국내외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술 세미나, 포럼 등의 공동 주최 또는 참여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작년 6월 출범 이후,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 연구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한국정책학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동포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중소기업유통센터,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나서

전 세계 재외동포 기업인과 연계해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국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선다.

9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기철 청장과 이태식 대표이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 ▲재외동포청의 한상넷(hansang.net)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유통지원 포털사이트(fanfandaero.kr)



이기철(왼쪽) 재외동포청청장과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MOU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계 등 협력, ▲기타

대 도출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국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오는 10월22일~24일 전북 전주시에 전북대 일원에서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를 전담 운영한다.

두 기관은 전 세계 재외동포 바이어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간 효율적 매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 도출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재외동포청,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의료지원 협력 맞손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재외동포 대상 의료지원 협력과 국내 입국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천보훈병원(병원장 김춘동)과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8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기철 청장과 김춘동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청장과 김 병원장은 이날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이기철(오른쪽) 재외동포청청장이 김춘동 인천보훈병원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동포 대상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사회 공헌활동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협력의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 재외동포의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 ▲러시아·CIS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한 국내·외 의료 협력, ▲재외동포 중 미충족 보훈의료 대상군 발굴 등 보훈의료 공공성 확대, ▲인천 거주 재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재외동포청 이상덕 제2대 청장 취임식 (7월 31일)

7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3일: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행사(외교타운)
- 9일: 동포청-중소기업유통센터 업무협약식(본청)
- 10일: 제3차 외청장 회의(정부세종청사)
- 11일: 재외동포청-한국정책학회 업무협약식(본청)
- 16일: 재외동포청소년 1차 모국연수 개회식(인천 하얏트호텔)
- 17일: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국회의사당)
- 1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 22일: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회식(송도컨벤시아)
- 23일: 다문화가족 차세대동포 초청사업(서울)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동포청,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1~4일 서울서 개최

한인 네트워크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 방안 논의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1~4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 마지막날인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열린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 기여'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현직 한인회장,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임원,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 인사 등 45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동포 초청행사 및 동포 간담회 등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는 '동포사회 건의 사항 피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동포사회 민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모두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른 새로운 통일 담론 형성과 통일을 위한 국제 사회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린다. 한인회가 추진하는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외국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 관련 워크숍과 재외동포 주



사진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모습

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분야별 현안 토론회가 신설됐다.

이밖에 재외동포청,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무청 등 정부 부처별 재외동포 정책 설명,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발표, 대회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하는 랩업 미팅도 진행된다.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보

- 2024 인천시 주최 청소년 디아스포라 영상 공모전(8월 1일~9월20일 접수)
- 전남도, 재외동포 대상 '고향에 여행가자' 참가자 모집. 1인당 1일 최대 15만 원 지원.신청 방법은 출향인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전남도가 만든 관광·교통·숙박·맛집 등 통합 예약·결제 어플리케이션인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통해 가능하다.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의 대변자



@overseas_koreans_agency



facebook.com/oka202365



@OKAKOREA